

‘전법포교 침병’ 위상 재정립한다

현행 포교사 선발제도와 교육과정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스님)과 포교사단(단장 윤기중)이 머리를 맞댔다. 포교원과 포교사단은 제도개선 TFT 첫 회의를 지난 16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포교원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포교국장 원묵스님과 한성운 포교사단 수석부단장 등이 참석했다.

포교사 제도개선 TFT 구성은 종단 최대 신도단체로 5000여 명이 활동하는 포교사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깨고, 지위와 역할을 재정립하자는 것에 포교원과 포교사단 모두 공감한 결과다. 포교사 상당수는 개인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전법포교의 밑바닥이라 할 수 있는 교도소나 구치소, 최전방에 위치한 군법당에서 활동하고 있다.

반면 재직사찰 스님과 갈등으로 인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신도가 사찰이 아닌 지역 단 활동에 무게를 두면서, 몇몇 스님들은 불교대학 졸업 후 포교사에 도전하는 신도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연간 불교대학에서 5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

포교원·포교사단 공감대 형성 포교사 제도개선에 머리 맞대

상반기 격주 TFT 회의 열고 선발 교육과정 조직개편 논의 권역별 공청회 열어 의견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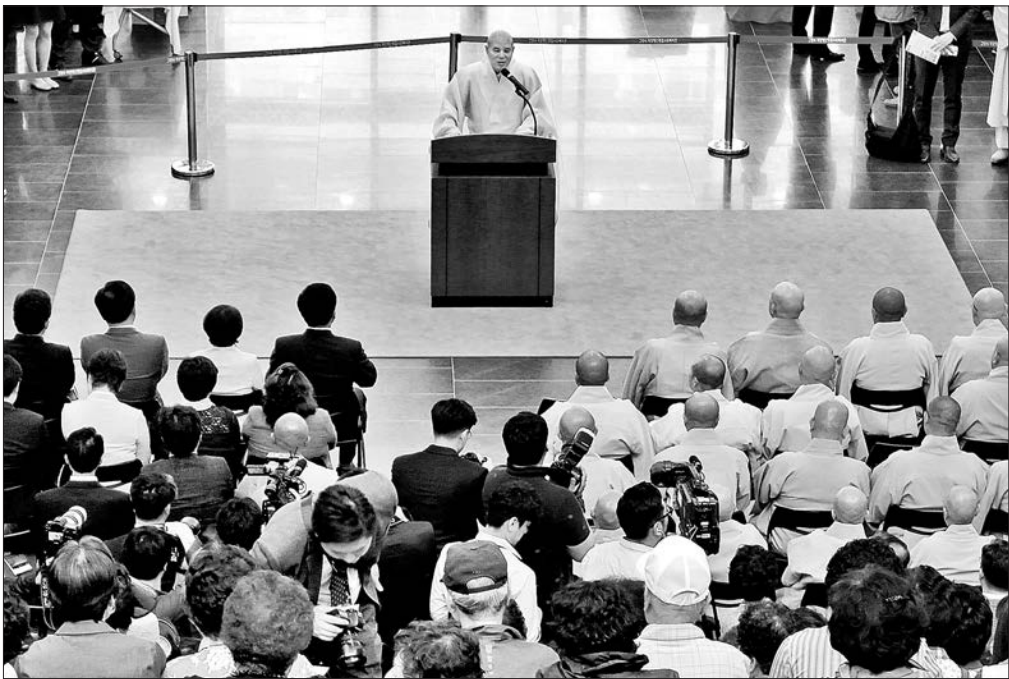
출하는데, 올해는 졸업생 중 10%가 포교사 고시에 응시했다. 이는 예년에 비해 3% 감소한 수치로, 그대로 두면 포교사 응시율 저하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만한 수치다.

TFT는 종단 내 포교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전법포교 침병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6월말까지 격주 목요일 정기회의를 열고 먼저 일반포교사 및 전문포교사 선발제도부터 점검한다. 현행 제도를 보면 1차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포교원 주지 오리엔테이션, 3개

월간 지역단 활동 후 최종 선발된다. 그러나 포교사들은 고시에 합격했다고 해서 전법포교 현장에서 바로 활동하긴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포교사 선발과정에서 전법능력을 기르는 교육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13개 지역단에서 운영되는 400여개 팀에 대한 조직편제, 사찰과 신도단체 관계 개선과 인식변화 방안도 논의한다.

이어 포교원장 지홍스님이 주재하는 권역별 공청회를 열어 TFT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포교사들은 물론 사찰 주지 스님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포교부장 가섭스님은 “신행혁신을 통한 불자증가와 전법포교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데 포교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포교 최일선에 있는 포교사 역량강화를 포함한 지위와 역할을 재고하는 발전적인 대안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기중 단장은 “종단에 재가포교사가 배출된 지 22년, 포교사단 출범 17주년을 맞아 이번 TFT 논의가 포교사단 발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지난 18일 열린 고양시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치사를 통해 “안락한 삶과 모든 생명의 존엄이 인정되는 건강한 사회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 복지의 롤모델 제시”

덕양행신종합복지관 개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고양시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관장 강영규)이 지난 18일 개관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2층, 지상 5층의 1만 5318㎡ 규모를 자랑하는 대규모 시설. 복지관은 이날 총무원장 자승스님,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민스님, 수국사 주지 호산스님, 최성 고양시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개최했다.

개관식은 운영지원을 맡은 수국사 주지 호산스님의 내빈 소개에 이어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치사로 이어졌다. 총무원장 스님은 “현 시대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은 생명의 존엄을 너무 쉽게 훼손하고, 분별없는 욕망은 생태계의

안타까운 상처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리는 중생구제라는 본연의 역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와 자원봉사 곳곳에서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럴 때 자유와 평화, 조화와 균형, 안락한 삶과 모든 생명의 존엄이 인정되는 건강한 사회공동체가 구현될 것”이라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당부했다.

최성 고양시장은 “복지관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운영이다. 이 복지관이 우리나라 복지의 롤 모델을 제시하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는 이어 대학교요체 출신 가수인 우순실 씨, 고양시립합창단 축하공연으로 진행됐다.

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동네 복지 희망 파트너’를 모토로,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어린이집, 시민건강센터, 지역 푸드뱅크 등을 함께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과 지역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고양=안진숙 기자 isahn@ibulgyo.com

교구본사 포교국장, 말사 불교대학서 강의

포교원 ‘필수교육강사’ 위촉 정책실천 앞장서 실천하며 신도 교육현황도 파악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스님)이 불교대학 종단필수교육 강사로 교구본사 포교국장 스님을 새롭게 위촉해, 본·말사 신도교육현황을 파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포교원은 지난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불교대학 종단필수교육 강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도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불교대학 종단필수교육은 포교원이 주최하는 최대 규모 신도교육으로, 매년 입학하는

6000명 이상의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초심불자들에게 종단을 이해하고, 조계종도로서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2012년 도입돼 체계교육으로 진행되다가 최근에는 교구본사 및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필수교육 강사 10여 명을 위촉해 운영하던 포교원은 올해는 범주사, 적지사, 쌍계사, 범어사, 관음사, 봉선사 등 6개 교구본사 포교국장 스님을 강사로 임명해 본사 및 지역 불교대학 강의를 맡겼다. 이는 본사가 말사 불교대학에서 진행되는 신도교육 현장과 신도현황을 파악하고, 본사 중심으로 불교대학 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종단 필수교육은 오는 11월까지 45회 가량

진행되며, 불교대학에서 지역연합, 본사연합, 단독시행 등을 선택하여 포교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강사 스님들은 교과목은 ‘종단의 이해와 나아갈 길’ ‘신도 정책과 품계제도 안내’ 외에 포교원이 추진하고 있는 신행혁신운동 ‘붓다로 살자’에 대해 총 4시간동안 강의한다.

포교원장 지홍스님은 “종단이 불교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필수교육을 시행한 이래 처음으로 강사 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며 “전국 불교대학에 입학한 불자들이 종단을 빠르게 이해하고,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포교원 대표선수인 강사 스님들이 열성적으로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본·말사 주지 인사 (5월11일·17일 중무회의)

												
선일스님 인천 범명사	행덕스님 진주 청계암	각의스님 청주 화림사	동명스님 육천 문수암	탄공스님 공주 갑사	해광스님 논산 관촉사	도운스님 당진 성당사	상덕스님 김천 청암사	현공스님 대구 불광사	동봉스님 진주 여래사	현선스님 함양 고당사	원해스님 함천 백룡사	원타스님 부산 선암사
												
진용스님 울산 내원암	유원스님 울산 죽림정사	동오스님 의성 윤림사	경호스님 진안 육천암	도성스님 광주 복암사	만당스님 영광 불갑사	원중스님 강진 신흥사	상효스님 광주 보림선원	자공스님 화순 만연사	현문스님 목포 길상사	대저스님 신안 칠량사	해답스님 광양 신흥사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장례위원장 자광, 보광

- 집행위원장 김재선, 정충래
- 집행부위원장 형욱
- 집 전 진우, 덕유, 이하주
- 홍 보 번재덕, 정승택
- 49개 봉행 봉선사

- 장례위원장 자광, 보광
- 지도위원 성타, 경일, 지원, 세영, 일관, 정남, 승원, 호 상 성효
- 김선근, 김기유, 주경, 덕문, 구자명, 일면, 전영화
- 장례부위원장 이대원, 이의수, 김성훈, 이관제, 오민구
- 장례위원 가나다순
- 혜 원, 범 수, 종 호, 강법주, 강삼모, 강현숙, 광대경, 광문규, 광채기, 구본철, 권경희, 김관규, 김근복, 김복순, 김상욱, 김성철, 김세곤, 김수동, 김승호, 김신재, 김영민, 김영진, 김정대, 김정환, 김진선, 김형상, 김형중, 김혜순, 나득영, 도재수, 류완하, 문태수, 박경일, 박명호, 박민영, 박선형, 박성식, 박원환, 박재원, 박정훈, 박준영, 박현상, 박현식, 박형수, 백설향, 서운교, 신성현, 신영섭, 양형진, 윤성익, 이강우, 이광근, 이영정, 이윤규, 이윤호, 이종태, 이철한, 이충렬, 이형열, 임중연, 장성재, 정성훈, 정영식, 정용욱, 정우택, 정지천, 조영석, 조영석, 진대호, 채석래, 한희원, 허남결, 홍성조, 황순일, 정환민, 신관호

訃告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이자 영석고등학교 설립자이신 대법장 안채란 불자께서 2017년 5월 19일 07시에 타계 하셨습니다. 알려드립니다.

- 영결 일시 2017. 5. 21. 07시
- 영결 장소 동국대학교 일산불교병원 장례식장
- 장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채란안사
- 상주 장남 이상래
- 손 이동걸, 이남걸
- 손부 최영미, 정소영